

투데이 칼럼

입춘, 마음들이 모이는 것이 곧 인덕이고 복

아 직도 너무 추운데 벌써 2 월4일 봄이 온다는 입춘이 된다.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리 따뜻하지 않다. 세월이 하 수상하니 몸과 마음이 다 얼어붙어 오랜만에 한강까지도 걸었다.

우리 민속의 세시풍속 가운데 입춘에는 주로 액을 먹고 새로운 해의 길운을 기원하는 뜻으로 입춘첩을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였다.

일반적으로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개문민복래(開門萬福來)', '수여산(壽如意山) 부여해(富如意海)', '부모천년수(父母千年壽)·자손만대영(子孫萬代榮)' 등의 글귀를 써서 붙였다.

모두 새해에 대한 희망을 담았다. 그 가운데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개문민복래(開門萬福來)'란 말은 '마당을 헐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잘 익은 것을 거두어 노적기집에 쌓아 놓았는데 여기서는 황금이 안 나오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쓸다 보니



하 도 겸

칼럼리스트

황금이 나오더라는 뜻이라는 말이다. 성실하게 일하면 재물과 복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원을 담은 것 같은데, 좀 그렇다. 혹시 이런 뜻은 아닐까? 새해 집안의 끝은 때를 벗겨내는 청소와 정리정돈을 깨끗이 잘 해놓으면 집에 밝은 기운도 들고 환해져서 황금처럼 빛이 난다고도 높답처럼 말하기도 한다.

집안이 반婢반작하며 빛나니 마치 황금빛이 집에서 나오는 듯하다고 조금 과장해서 말할 수 있다. 청소한다고 해서 크게 다를 바 없을 듯 하도 청소한 끝에 마음도 깨끗하고 아득히 안 된다. 따뜻한 마음으로 밝고 밝아진 집 대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다른 이의 뜻과 생각도 받아들여야 한다. 흔히들 오픈마인드(open

이라는 것이 있었다.

비록 그만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문은 열지 말고 마음의 공간을 열어야 한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것이 인덕이고 복이다. 그래서 만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다.

나부터 그레이겠다고 마음 먹고 오랜만에 주변사람들에게 밥도 사고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된다. 새해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해봐야겠다.

입춘 일인 2월4일 오전 10시30분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과·김성익과장과 담당인 오창현 학예연구사는 '예년처럼 전통한복 오춘대 대청마루에서 서예가가 입춘첩을 쓰고 대문에 붙인다'고 전한다. 오전 10시반부터 20분간 오춘대에서 입춘첩 붙이기 시연을 하고 바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와석(臥石) 서명택을 비롯한 서예가 3명이 관람객들에게 즉석에서 입춘첩을 써서 선착순으로 증정하는데, 물론 무료다. 올해에는 입춘첩을 받아서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이 문에 꽂 붙이기 바란다.

mind)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 듯하다. 그러면 '발아들임'이 좋아지게 된다. 문은 열지 말고 마음의 공간을 열어야 한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것이 인덕이고 복이다. 그래서 만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다. 나부터 그레이겠다고 마음 먹고 오랜만에 주변사람들에게 밥도 사고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된다. 새해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해봐야겠다.

나부터 그레이겠다고 마음 먹고 오랜만에 주변사람들에게 밥도 사고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된다. 새해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해봐야겠다.

입춘 일인 2월4일 오전 10시30분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과·김성익과장과 담당인 오창현 학예연구사는 '예년처럼 전통한복 오춘대 대청마루에서 서예가가 입춘첩을 쓰고 대문에 붙인다'고 전한다. 오전 10시반부터 20분간 오춘대에서 입춘첩 붙이기 시연을 하고 바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와석(臥石) 서명택을 비롯한 서예가 3명이 관람객들에게 즉석에서 입춘첩을 써서 선착순으로 증정하는데, 물론 무료다. 올해에는 입춘첩을 받아서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이 문에 꽂 붙이기 바란다.

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 막아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또 예의 주시 대상이다. '규제 프리존'이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라지만 앞으로 수도권 시도의 반발 목소리가 우려된다. 저번에 비도시 지역의 공장 입지 제한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그 의도가 보다 뚜렷해졌다. 정부 측에서 경기도 등북부 지역의 관심을 사려고 했는지 기업부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정치 시즌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이다.

경기 등북부 지역이라고 제한하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다른 수도권 시도의 반발 기회가 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것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벌써부터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으니 쓸데 없는 기우가 아니다. 국토부는 생활지 뜨거워질 때마다 빠져나가기 위해 연락을 쳤는데 이번에는 어떤 품수를 내놓을지 모르겠다.

저번에 국토부의 주요 주민업무 계획을 보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의

목적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토를 달았는데 그

것은 이쪽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설 명절, 지역 농산품에 주목할 때

설 명절을 맞아서 지역 농산품에 주목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명절 때면 반복해 당부했던 대로

도내 대형마트들의 판매 협조가 소망스럽다. 나를 판매 전략이 있겠지만 지역사회와의 정서에 맞게 협조했으면 한다. 농산물 미밀리지 개념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 농산물을 우선시하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공한 농산품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항토의 농산물들은 품질이 우수하다.

이번에 전북의 쌀이 중국 상해로 첫 수출 길에 올랐다. 중국인들이 우리 전북의 쌀이 좋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예전에 설 연휴 때는 귀경하는 이들에게 작은 쌀 포대를 하나 씩 선물하는 행사가 있었다.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같은 행사는 수도권의 사람들에게 전북의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다. 항토 농산품에 대한 구매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올해도 그런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독자제언

즐거운 설 명절은 작은 관심으로부터

온 집안 친척들과 가족들이 한곳에 모인다. 이제 곧 설명절이다. 새해 인사를 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 받고 그 동안의 못 다한 이야기와 지난간 일, 주여과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절을 보낼 것이다. 가족을 만나는 이유는 아마도 고향의 그리고 객지의 삶에 치여있는 심신을 고향의 냄새와 맛 그리고 풍경으로 달래보기 위함일 것이다. 고향으로 내려와 어렸을 적 놀았던 놀이터와 많이 변한 고향의 풍경을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진 부모님의 주름과 늘어버린 하얀 머리카락까지, 보고 느끼며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한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이러한 즐거움을 일상의 바쁨과 누군가의 이해를 바탕해 무관심으로 지나치게 한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린 가족의 소중함은 점점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벌어진 사이는 명절에 만나버린 가족 간의 대화에서 공감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공감을 하지 못하는 대화는 회의와 냉소로 바뀌고 내내 목소리는 높아지고 심嗽으로 번지게 된다. 이것이 명절의 가장 끔찍이 일어나는 이

유일 것이다. 가족이 모여있으면 당연히 부모자식 간, 형제간 자매간 남매간에 사소한 다툼은 항상 존재한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응답하라 1988'에서도 자매간 남매간 부단하고 고성이 오며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과거에도 가족간에 이러한 다툼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다툼이 가정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 왜 일까?

필자가 내린 결론은 관심이다. 과거에는 전화도 부족하고 기회도 많지 않았지만 늘상 대화를 했고 어쩌면 가부장적인 가족체계에서 밤상에 마주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매일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대화 아닌 대화를 비롯하여 가족간에 관심을 줄 수 밖에 없었다. 과거의 가족체계에서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관심은 상대를 이해시키고 싸울지언정 회의하지 않고 냉소적이지 않다. 볼 수 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가족 체제였던 사회가 이제는 변화하였다. 스스로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것이

인태익 님원경철서 경무계 경찰

음주운전으로 설 망치지 말아야

며칠 뒤면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다. 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대부분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려 고향으로 내려가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을 즐겨운 명절을 보내는 것 중 하나 일 것이다. 이러한 즐거운 설날을 막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거나 되돌릴 수 없는 삶의 질을 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며 일어나서 안 되는 행위이다. 해마다 경찰에서는 설 명절 연휴기간에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정도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술을 한잔 먹든 두잔을 먹든지 술을 먹은 후에는 운전대를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전날 과음 하여 술이 깨지 않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솔 시원하게 짙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 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